

우울한 사람들의 자기지각 왜곡

황순택 · 최정훈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기억에 관한 자기지각'의 양상을 분석하여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의 상대적인 차이가 우울한 사람의 능력의 실제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각적인 왜곡경향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고자 했다. 94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BDI를 실시하였다. 뒤이어 40쌍의 짹짓기 학습과제를 쌍당 5초 간격으로 제시한 후 자극어만 제시하면서 반응어를 회상하게 했다. 이때 회상에 실패한 반응어를 4지선다형 재인검사라면 맞힐 자신이 있는지를 각 자극어마다 예상·판단하게 하고, 그후 실제로 4지선다형 재인검사를 실시하였다. 예상판단의 "Yes" 혹은 "No"와 재인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BDI점수로 구분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간에 기억능력이나 기억의 자기지각 능력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우울집단은 비우울집단에 비해 자신의 재인능력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또 그들의 실제 수행에 비해 심하게 과소평가적인 기억지각왜곡을 보이는 반면, 비우울집단은 비교적 정확한 자기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한 사람이 실제적인 능력상의 결함은 없으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왜곡을 보인다는 Beck의 인지적 이론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오랫동안 우울증은 정서적 장애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의 폭넓은 임상관찰과 실험적 연구의 결과 인지적 장애나 행동적 장애로 보는 견해가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우울증을 인지적 장애로 보는 견해(Beck, 1967, 1976)에서는 인지적 왜곡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을 설명하고 있다. Beck에 의하면 인지체계나 사고과정의 왜곡이 우울증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즉, 우울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세가지 인지요소(cognitive triad)때문에 자기자신, 환경, 미래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게 되고 그 결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경향이 지속되면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고 부

정적 혹은 중성적인 정보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우울증의 정서적 및 행동적 특징은 이러한 인지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Beck의 이러한 입장은 개인이 갖는 환경과의 실제적 상호작용이나 자신의 현실(reality)보다는 그에 관한 개인의 구성개념(construct)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 그 자체보다도 개인의 구성개념에 초점을 둔 이러한 주장은 자기탐지, 자기평가, 자기강화로 진행되는 일련의 자기통제 과정으로 우울한 사람들의 왜곡경향을 설명하고 있는 Rehm의 견해에서도 찾을 수 있다. Rehm(1977)은 부정적인 자기탐지, 지나치게 높은 기준 설정, 부정적인 자기 평가, 불충분한 자기 강화, 과도한 자기처벌 등이 우울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울한 사람은 자기기준이 엄격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자기관을 갖는다는 Beck이나 Rehm의 주장은 실험실과제의 수행과 그에 대한 회상, 평가, 강화, 그리고 강화의 회상 등과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Gotlib, 1981; Kuiper, 1978; Lobitz & Post, 1979; Rehm, 1977; Wener & Rehm, 1975). 우울한 사람의 왜곡된 자기관이 그들의 실제 능력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Rehm(1977)은 피험자들에게 무의미 철자의 재인과제를 부과한 후 자신의 성공 혹은 실패를 탐지(monitor)하게 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게 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 보상을 주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기평가나 자기보상이 그들의 실제 수행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사람에 있어서 자기보상, 자기처벌과 정적·부적 정보의 회상 간의 관계를 비교한 Gotlib(1981)의 연구에서도 그들의 왜곡경향이 관찰되었다. Gotlib은 우울증집단, 정상인통제집단, 임상통제집단에게 언어재인과제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반응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면 보상(self-reward)을, 오답이라고 생각되면 처벌(self-punishment)을 가하도록 했다. 그 후 자신들의 보상이나 처벌의 정도를 평가하게 했을 때 우울증집단은 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제보다 보상은 더 적었고 처벌은 더 많았다고 회상하였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의 지각이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만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연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Demonbreum & Craighead, 1979; Hoehn-Hyde, Schlottmann, & Rush, 1982; Nelson & Craighead, 1977;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Wollert & Buchwald, 1979; Zarantonello, Johnson, & Petzel, 1979). Zarantonello 등(1979)은 우울경향이 높은 집단과 우울경향이 낮은 집단에게 철자맞추기과제(anagram task)를 실시했을 때 수행성적의 집단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는 집단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우울경향

이 높은 집단이 모든 경우에 자신의 수행을 실제로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과제가 보다 어렵고 자아가 관여된 조건에서만 낮게 평가했다. 이 결과는 우울한 사람이 과제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Wollert와 Buchwald(1979)은 MMPI 우울척도와 추리력 과제를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실시한 후 그들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대 및 평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울척도 점수와 수행에 대한 기대·평가간에 부적인 상관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가 실제에 비해서 전적으로 부정적이라 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우울한 사람들의 지각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 주로 행동적인 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다. 임상장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우울증의 주요한 문제가 사회적 행동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사회적 행동 그 자체와 그에 대한 강화 유형에 강조점을 두고 우울증을 설명하고 있는 행동적 접근(Lewinsohn, 1974; Lewinsohn & Hoberman, 1982; Libet & Lewinsohn, 1973)에서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자기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인지과정의 왜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환경적 피드백의 사실적인 지각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지고 긍정적 강화가 결여되므로 그 결과로 우울증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기술에 대한 자기지각을 연구한 Lewinsohn 등(1980)은 우울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함을 발견했다. Lewinsohn 등은 우울증집단과 임상통제집단 및 정상인통제집단을 실험실내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상호작용을 가지도록 한 후 그들 자신의 사회적 기술을 평가(자기 평가)하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관찰자로 하여금 일방거울을 통해서 그들의 상호작용 장면을 지켜본 후 평가(관찰자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우울증집단의 자기평가는 두 통제집단의 자기평가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관찰자평가와는 높은 일치도를 보았다. 이에 의해 두 통제집단의 자기

평가는 그들에 대한 관찰자 평가에 비해서 훨씬 긍정적이었다. 즉 우울증 집단의 자기 평가는 부정적이긴 했지만 매우 객관적이었던 반면에 두 통제집단의 자기 평가는 비객관적, 과대 평가적이었다. 또 이와 유사한 실험실 상황에서 Gotlib과 Robinson(1982)은 우울 경향이 낮은 피험자는 다른 우울 경향이 낮은 피험자와 상호작용을 가질 때에 비해서 우울 경향이 높은 피험자와 상호작용을 가질 때에 부정적인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을 훨씬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 결과를 Lewinsohn 등(1980)의 연구와 관련지어 본다면 Beck이 ‘왜곡’이라고 본 것은 사실상 부정적인 환경정보를 정확하게 지각한 것일 가능성은 말해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적 이론은 인지적 과제의 수행과 그에 대한 지각, 평가, 회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우울한 사람들이 능력상의 실제적인 결합은 없으나 인지적 왜곡 경향으로 인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행동적인 이론은 실험실 상황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우울한 사람들이 능력상의 실제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결함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반면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과대 평가적, 자기 고양적(self-enhancing)으로 자신을 지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울한 사람들이 능력상의 실제적인 결합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지각·평가가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임상 장면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의 상대적인 자기 지각 차이가 우울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소 평가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부족한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때문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임상 장면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환자들의 문제 중에는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 사회적 고립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Youngren & Lewinsohn, 1980).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자기 지각 연구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임상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자기 지각을 절대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자기 지각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상대적 차원의 비교와

는 달리 그러한 차이가 지각 왜곡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능력상의 결합을 정확히 지각하기 때문인지를 보는 절대적 차원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준거가 우선 설정되어야 한다.

Lewinsohn 등(1980)의 연구에서는 관찰자 지각을 객관적인 준거(그들의 연구에서는 ‘social reality’)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자기 지각과의 비교 기준으로 삼았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을 객관적인 준거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적 행동이란 그 자체가 상대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지적한 것처럼 피관찰자에 대한 관찰자의 친밀도, 호감도가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사회적 고정관념, 관찰자와 행위자 간의 기준차이, 귀인 경향 차이 등도 개입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관찰자 간의 지각 불일치 즉 자기 지각과 관찰자 지각 간의 불일치를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Lewinsohn의 또 다른 연구(Youngren & Lewinsohn, 1980)에서 우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 관계상 행동적인 결합을 발견하는데 실패한 것이나 Strack과 Coyne(1983)의 우울증 연구에서 사회적 행동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평가 간에 집단 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 등은 이같은 점 때문일 수도 있다.

개인의 현실(reality)과 그에 대한 자신의 지각·평가를 절대적인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비인격적(impersonal)인 실험 실과제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객관적인 과제 수행 성적과 그에 대한 자신의 지각, 평가, 회상 결과를 직접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에서의 문제점은 피험자가 과제 수행 도중 수행 점수를 하나하나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일단 마친 후에 수행을 지각, 평가, 혹은 회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 단서가 매우 빈약해 진다는 점이다. 이때 피험자가 하는 일은 수행 수준의 직접적인 지각이라기보다 사후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험자의 지각, 평가 혹은 회상은 과제 수행 그 자체보다는 과제 외적인 경험, 실험 이전의 기대 등에 의존하게 된다(Coyne & Gotlib, 1983; Mischel, 1973). 비인격적인 실험 실과제를 사용한 연구에서 우울 경향이 높은 사

람들의 지각적 왜곡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Alloy & Abramson, 1979; Wollert & Buchwald, 1979; Zarantonello et al., 1979)는 이러한 과제와 절차가 갖는 빈약한 지각단서 때문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기억에 관한 자기지각’ 연구 특히 “Feeling of Knowing” 연구방법(Hart, 1965, 1966, 1967a, 1967 b; Lachman, Lachman, & Thronesberg, 1979; Nelson, 1984; Nelson & Narens, 1980)을 이용하여 개인의 기억저장 정도와 그에 대한 자기지각을 직접 비교해봄으로써 우울경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자기지각 차이를 절대적인 차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Feeling of Knowing(이하 FOK로 표기함) 연구란 특정한 정보가 개인 자신의 기억저장 속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과정과 그 탐색정확도를 연구하는 분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방법은 Hart(1967)가 사용한 FOK연구 방법이다. Hart가 사용한 절차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먼저, 일련의 단어과제를 학습시킨 후 그 과제를 회상하게 한다. 회상에 실패한 항목에 대해 ‘만약 재인검사로 인출하게 한다면 성공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항목당 평가(FOK판단)하게 한 후 실제로 회상실패 항목에 대해 재인검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회상실패 항목에 대한 재인 가능성 예상판단과 그들 항목의 실제 재인검사 성공여부 간에 얼마나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지를 개인내적으로 비교하는 절차를 통해서 기억지각의 정확도를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FOK 연구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피험자의 반응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준거를 설정하기가 용이하고, 피험자에게 지각 단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또 지각능력 그 자체와 지각한 것을 평가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왜곡경향을 분리시켜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절대적인 비교의 준거가 되는 개인의 ‘객관적인 사실’은 ‘개인의 기억저장 정도’로 정의되며, 이를 다시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자극어-반응어의 짹짓기 학습과제에서 회상에 실패한 반응어를 4지선다형 재인검사(4-alternative forced choice recognition test)로 재인하게 했을 때의 성공 여부’이다. 이 조작적 정의

에서 가정되는 것은 피험자가 어떤 정보처리과정을 거치든 재인단계에서 자신의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가능한 최대로 인출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4지선다형 재인검사는 일종의 강제선택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 피험자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면 기억속에서 자극어와 연합강도가 가장높은 대안에 반응할 것이고 따라서 기억저장 속의 정보가 최대한으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 법

피험자

심리학 개론을 수강중인 연세대학교 1학년생 중 지원자 94명이 참가하였다. 결과분석에는 전체 실험 참가자 94명 중 그들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점수분포(평균 11.03, 표준편차 6.47, 점수범위는 0점~33점)에서 평균값을 중심으로 ± 0.5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피험자들의 자료만 사용되었다(이하 평균+0.5표준편차 이상인 피험자들은 ‘우울집단’으로, 평균 0.5표준편차 이하인 피험자들은 ‘비우울집단’으로 표기함).

두 집단의 피험자수, 성별, BDI 평균점수는 다음과 같다. 즉, 우울집단은 26명(남 14, 여 12)으로 되어있으며, 그들의 BDI점수는 평균 19.12(표준편차 5.27), 최저 12점, 최고 33점이다. 비우울집단은 26명(남 14, 여 12)으로 되어있으며, 그들의 BDI점수는 평균 4.46(표준편차 2.20), 최저 0점, 최고 7점이다. 각 집단은 BDI 평균점수로 볼 때 Beck(1967)이 구분한 우울증(16~23점) 집단과 우울하지 않은(0~9점) 집단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구성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나 두 집단간 우연히 일치하였다.

재료

피험자의 우울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연(1985)이 번안한 BDI(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 한국어 번안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한글 2음절 명사로 구성된 40개의 자극어-반응어 쌍으로 된 짹짓기 학습과제를 준비하였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한국어 명사의 심리적

속성 연구 : I 심상성"(이 관용, 1976)에서 2음절 명사 중 심상가가 6.0이상인 것 40개, 4.0이하인 것 40개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40쌍의 항목의 기억난이도가 폭넓게 분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높은 심상가 단어-높은 심상가 단어 10쌍, 높은 심상가 단어-낮은 심상가 단어 10쌍, 낮은 심상가 단어-높은 심상가 단어 10쌍, 낮은 심상가 단어-낮은 심상가 단어 10쌍을 각각 무선적으로 할당하여 짜지웠다. 피험자 반응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자극어 40개만 인쇄된 16절지 2매(회사검사용과 재인예상평가용)와 40개의 자극어 하나하나에 정답반응어가 포함된 4개의 반응대안이 인쇄된 16절지 1매(재인검사용)를 피험자당 준비하였다.

짝짓기학습시의 과제제시를 위해 Apple II 개인용 컴퓨터(Union DLX)를 준비하였다.

절차

시간 약속을 한 피험자가 모두 도착하면 본 실험과 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BDI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지시는 다음과 같다.

“아직 한 사람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잠깐만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도착하면 같이 실험을 시작하기로 합시다…(약 1분가량 후에) 그동안 우선 이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은 Aron Beck이라는 사람이 만든 일종의 성격검사인데,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시켜 사용할 목적으로 번안한 것입니다… 국내판 규준을 제작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잘 읽어보시고 각 문항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번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BDI체크가 다 끝난 것을 확인한 다음 “한 사람은 실험에 참가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그냥 시작하기로 합시다”라고 말한 후 컴퓨터 모니터 1대당 2명의 피험자가 앉도록 했다. 실험이 진행된 방에는 4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번 실험에 6~8명의 피험자가 동시에 참석하였다.

우선 본 실험에서 사용할 짝짓기학습 및 숫자빼기 과제(Brown-Peterson task)의 개요와 이때 피험자가 해야할 일을 설명한 후 연습시행을 2회 반복하였

다. 이후의 절차는 학습단계, 회상단계, 기억지각단계(feeling of knowing 판단단계 : 이하 FOK 판단단계라 칭함), 재인단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①학습단계 : 피험자들에게 화면 중앙을 주시하도록 한 다음 40개의 단어쌍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쌍당 제시시간은 5.0초, 자극간 간격은 0.1초였다. 그 직후 화면에 세자리 숫자가 나타나도록 하여 30초간 숫자빼기 과제를 하게 했다. 이는 학습과정을 마친 후 회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반복시연이 FOK정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elson, Leonesio, Shimamura, Landwehr, & Narens, 1982) 과제의 뒷부분이 선택적으로 반복시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회상단계 : 숫자빼기 과제가 끝난 후, 40개의 자극어만 인쇄된 용지에 반응어를 회상하여 적게 했다. 이 용지의 항목 배열순서는 학습시와는 다르게 인쇄하였다. 이때 자신이 없는 것이라도 가급적 빈칸을 두지 말고 모두 채워 적도록 격려했다.

③FOK판단단계 : ‘만약 하나의 자극어에 4개의 보기가 주어지는 4지선다형 검사라면 정답반응어를 골라낼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자극어에 대해 “Yes”(이하 FOK-yes로 표기함) 혹은 “No”(이하 FOK-no로 표기함)로 적게 했다.

④재인단계 : 각 자극어당 정답반응어가 포함된 4개의 반응대안이 적혀있는 용지에서 정답반응어를 체크하게 했다. 이 용지도 학습이나 회상시와는 다른 순서로 항목이 배열되어 있었다.

결과

기억과제의 수행

회상단계에서 우울 집단은 평균 16.35개, 비우울 집단은 평균 18.27개의 회상을 보였으며(표1 참조), 이 두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50)=1.09$, $p>.10$. 재인단계에서 우울 집단은 평균 32.96개, 비우울 집단은 평균 33.70개의 수행을 보였다. 이 두 점수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50)=0.59$, $p>.10$. 또, 회상에는 실패하고 재인에는 성공한 항목수도 우울 집단은 평균 16.69개, 비우울 집단은 15.85개로 두 점수간에

표 1. 집단별 기억과제 수행 평균점수

집 단	회상점수	재인점수	회상실패항목총 재인성공점수
우울집단	16.35 (5.95)	32.96 (3.97)	16.69 (4.15)
비우울집단	18.27 (6.77)	33.70 (4.98)	15.85 (3.53)

주. ()안은 표준편차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50)=0.59$, $p>.1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기억과제에 있어서 두 집단이 기억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억지각 능력

각 개인마다 표 2와 같은 2×2 분류표를 만들어 이후의 분석에 들어갔다. 이 분류표의 집단별 집계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각 칸내의 점수를 전체 회상 실패 항목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2. 회상실패 항목들의 분류표

FOK판단	재 성	재 공	인 실	인 패	계
FOK-yes	a		b		a+b
FOK-no	c		d		c+d
계	a+c		b+d		a+b+c+d

표 3. 집단별 회상실패 항목들의 분포

FOK판단	우울집단			비 우울집단		
	재 성	인 실	계	재 성	인 실	계
FOK-yes	7.54 (3.76)	1.73 (1.69)	9.27 (4.74)	8.96 (3.40)	3.08 (3.05)	12.04 (4.70)
FOK-no	9.15 (4.06)	4.85 (3.74)	14.00 (5.83)	6.89 (3.51)	2.81 (2.61)	9.70 (5.53)
계	16.69 (4.15)	6.58 (3.96)		15.85 (3.53)	5.89 (5.50)	

주. ()안은 표준편차임.

표 4. 집단별 회상실패 항목들의 구성비율

FOK판단	재 성	인 실	인 패	계
FOK-yes	32%		7%	39%
FOK-no	40%		21%	61%
계	72%		28%	

우울집단

FOK판단	재 성	인 실	인 패	계
FOK-yes	41%		14%	55%
FOK-no	32%		13%	45%
계	73%		27%	

비우울집단

본 연구에서는 회상에 실패한 항목 중 FOK-yes로 반응하고 재인에 성공한 항목 표 2의 a와 FOK-no로 반응하고 재인에 실패한 항목 표 2의 d는 자신의 재인수행을 정확하게 예상평가한 것으로 보고 이 두 항목의 합의 비율 즉 표 2의 $(a+d)/(a+b+c+d)$ 를 개인의 기억지각 능력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개인의 $(a+d)/(a+b+c+d)$ 의 집단 차이를 Mann-Whitney U-test로 검증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U=320.5$ $p>.10$.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에 있어서 기억지각 능력이 집단간에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인예상 평가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의 양 및 그 정보를 탐색, 지각하는 능력이 동일하더라도 FOK-yes 혹은 no판단 및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억저장 속에서 탐색, 지각된 정보의 강도가 FOK-yes판단 및 반응 기준을 넘어서야 FOK-yes라고 판단하고 반응하게 될 것인데, 이 FOK판단 혹은 반응의 기준 즉 역치(threshold)는 개인의 성격적, 동기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저장 속의 정보를 지각한 강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FOK-yes판단 혹은

반응의 역치를 넘지 못하면 FOK-no로 반응할 것이고, 반면에 지각된 강도가 약하더라도 그것이 FOK-yes판단 혹은 반응 역치를 넘는 경우 FOK-yes라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OK-yes/no의 반응은 개인의 기억지각 능력뿐만 아니라 FOK-yes/no 판단 및 반응 역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우울특성과 관련된 성격적, 동기적 요인 가령, 망설임, 열등감, 자기비하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설정 등이 FOK-yes/no 판단 및 반응 역치에 영향을 준다면 실제로 FOK-yes 혹은 FOK-no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앞에서 개인의 기억저장의 정도나 기억지각 능력에 있어서는 집단차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FOK-yes 반응과 FOK-no 반응을 비교해 봄으로써 FOK-yes/no 판단 및 반응 역치의 집단차 즉 재인 예상평가의 집단차가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우선 각 집단당 FOK-yes 항목 a+b와 FOK-no 항목 c+d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또, FOK-yes 항목 비율 $(a+b)/(a+b+c+d)$ 의 집단차가 있는지 살펴 본 후에 분석을 계속할 것이다. 전체 회상실패 항목에 대한 FOK-yes 항목의 비율과 FOK-no 항목의 비율을 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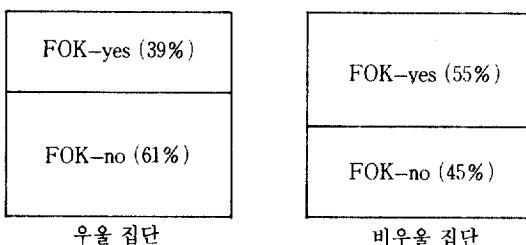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FOK-yes 항목과 FOK-no 항목의 구성비율 및 상대적인 면적

각 집단당 a+b와 c+d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우울 집단은 FOK-no 항목이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t(25)=10.27, p<.0001$, 비우울 집단은 FOK-yes 항

목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t(25)=9.88, p<.0001$. 또 두 집단의 FOK-yes 항목 $a+b/(a+b+c+d)$ 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우울 집단에 비해 비우울 집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U=168.5, p<.001$. 이러한 결과는, 나중에 제시되듯이 개인당 실제 재인수행을 고려한 수치를 비교해 보아야 명확하게 해석되겠지만, 회상에는 실패하고 재인에는 성공한 항목수 a+c가 집단간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재인성공 정도는 집단간 동일한데 비해 FOK-yes 항목의 비율은 비우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상대적으로 우울 집단은 자신의 재인능력을 낮게, 비우울 집단은 자신의 재인능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재인성공 항목들 중 FOK-no로 반응한 항목의 비율 $c/(a+c)$ 을 집단간 비교해 본 결과 우울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의 FOK-no 반응을 보였다, $U=216, p<.05$. 또, 재인실패 항목 중 FOK-yes로 반응한 항목의 비율 $b/(b+d)$ 을 집단간 비교해 본 결과 비우울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b/(b+d)$ 율을 보였다, $U=157, p<.005$.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c/(a+c)$ 나 $b/(b+d)$ 의 집단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우울 집단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실제로 아는 항목을 FOK-no라고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 비우울 집단은 실제로는 항목을 FOK-yes라고 반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으로, 평가반응×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우울 집단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재인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비우울 집단은 우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재인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인예상과 실제재인수행간의 차이

이 절에서는 어느 집단이 보다 왜곡된 평가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FOK-판단반응과 재인행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FOK-yes로 반응하고 재인에는 실패한 항목 b와 FOK-no로 반응하고 재인에는 성공한 항목 c가 있다. 여기서 b는 실제에 비해

과대평가한 항목을, c는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한 항목을 나타낸다. $b - c$ 가 0이면 과대평가 정도와 과소평가 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b와 c간의 집단내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우울 집단은 $t(35)=8.85$, $p<.0001$, 비우울 집단은 $t(25)=4.46$, $p<.0001$ 로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하게 c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집단 모두 과대평가 정도보다 과소평가 정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왜곡평가 항목 중 과대평가 항목 비율과 과소평가 항목 비율의 차이 $(b-c)/(b+c)$ 를 검토해 보았다. 이 지표는 우울 집단의 경우 중앙값이 -.73이고, 최저 -.100, 최고 .27인 분포를 나타내었고, 비우울 집단의 경우 중앙값이 -.46이고 최저 -.100, 최고 .22인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 지표의 집단차를 검증해 본 결과 비우울 집단에 비해 우울 집단이 0으로부터 더 많이 일탈되어 있었다, $U=197.5$, $p<.005$. 이 결과는 두 집단 모두 과소평가의 방향으로 왜곡을 보이되, 우울 집단이 보다 심하게 왜곡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재인성공 예상 항목 $a+b$ 와 실제 재인성공 항목 $a+c$ 간의 불일치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집단간 비교의 단위인 FOK-yes 항목비율과 재인성공 항목비율 간의 차이 $(a+b)/(a+b+c+d) - (a+c)/(a+b+c+d)$ 즉 $(b-c)/(a+b+c+d)$ 가 0보다 큰 것은 자신의 실제 재인능력보다 더 높게, 0보다 작은 것은 자신의 실제 재인능력보다 더 낮게 예상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우울 집단에서는 중앙값이 -.29이고 최저 -.74, 최고 .10인 분포를 보였고, 비우울 집단에서는 중앙값이 -.13이고 최저 -.71, 최고 .14인 분포를 보였다. 이들 두 분포는 $b/(a+b+c+d)$ 와 $c/(a+b+c+d)$ 간의 집단내 U-test로 확인해 본 결과 유의미하게 음의 방향으로 일탈되어 있었다. 우울 집단은 $U=102$, $p<.0001$, 비우울 집단은 $U=125$, $p<.0001$. 또 이 두 분포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우울 집단이 현저한 차이로 음의 방향으로 일탈되어 있었다, $(b-c)/(a+b+c+d)$ 의 집단간 U-test에서 $U=193.5$, $p<.005$. 이 결과들은 우울 집단은 비우울 집단보다 더 심한 과소평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Feeling of Knowing”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우울한 사람들의 자기지각 특성을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 간에 기억능력이나 기억의 자기지각능력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 집단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재인능력을 과소평가 하였으며, 또 그들은 우울특성과 관련된 심하게 과소평가적인 기억지각 왜곡을 보이는 반면 비우울 집단은 그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자기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Beck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결과는 우울한 사람의 자기지각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능력에서 결함이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능력의 결함을 입증한 연구(Coyne, 1976; Gotlib & Robinson, 1982; Lewinsohn, 1974; Lewinsohn et al., 1980)와는 불일치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울증에 있어서 사회적 능력이 비인격적인 인지적 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울한 사람이 일반적인 문제해결과제에서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 하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결함이 있음을 보인 Gotlib와 Asarnow (1979, 1980)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또, 우울한 사람이 실제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왜곡경향을 보이며, 정상인은 자신의 실제능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인지적 왜곡이 심하지 않다는 연구(Abramson & Alloy, 1981; Alloy & Abramson, 1979, 1982; Lewinsohn et al., 1980; Martin & Alloy, 1984)와는 불일치한 결과이다. 이들 연구는 사회적 기술이나 비인격적인 인지적 능력과 그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여 얻어낸 결과들인데,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의 경우 연구에서 설정한 ‘객관적 기준’이 애매하고, 한편, 비인격적인 인지적 능력에 관한 연구의 경우 피험자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할

당시에는 실험실 내의 과제나 과제수행을 직접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Coyne & Gotlib, 1983). 그러한 과제나 절차를 이용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경향이 높은 사람이 준거 측정(본 연구에서는 재인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항목에 대해 재인을 할 자신이 없다는 반응(FOK-no)을 하고 그후에 재인검사에서는 성공한 항목이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그들이 실제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절차에서는 '객관적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고, 피험자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 평가대상을 직접 지각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과제와 절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기가 보다 용이하다.

이러한 해석은 우울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높은 성취수준을 설정한다(Rehm, 1977), 자신의 높은 성취수준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Beck, 1976),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Gollin & Terrell, 1977; Nelson, 1977; Lapointe & Crondell, 1980)는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 신호탐지이론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우울한 사람의 보수적인, 엄격한 반응책략을 입증한 Miller와 Lewis(197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한가지 예측못한 결과는 우울경향이 낮은 집단도 정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와 절차가 피험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인 조심성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른다. 즉, 비인격적인 인지적 과제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우울한 사람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영역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정상인 특히 대학생을 피험자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울증 환자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 기억지각능력의 지표로 삼은 $(a+d)/(a+b+c+d)$ 는 과제의 난이도나 기억능력에 의해서도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지각 능력의 집단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약 두 집단간의 기억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에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다른 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 계수가 집단간 뒤바뀐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 연(1985), 우울증의 귀인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관용(1976), 한국어 명사의 심리적 속성 연구 : I, 심상성, *한국 심리학회지*, II.2, 95~102.
- Abramson, L. Y., & Alloy, L. B. (1981). Depression, nondepression, and cognitive illusion; A reply to Schwartz.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8, 4415-485.
- Abramson, L. Y., & Alloy, L. B. (1982).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and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104-1126.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57-62.
- Coyne, J. C. (1976). Toward an interactional description of depression. *Psychiatry*, 39, 28-40.
- Coyne, J. C., & Gotlib, I. H. (1983). Role of cognition in depression; A critical 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94, 472-505.
- Demonbreum, B. G., & Craighead, W. (1977). Selective recall of positive and neutral feedback,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 311-329.
- Golin, S., & Terrell, F. (1977). Motivational and

- associative aspects of mild depression and chance task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389-401.
- Gotlib, I. H. (1981). Self-reinforcement and recall; Differential deficits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521-530.
- Gotlib, I. H., & Robinson, L. A. (1982). Responses to depressed individuals : Discrepancies between self-report and observer-rated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231-240.
- Hart, J. T. (1965). Memory and feeling of knowing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6, 208-216.
- Hart, J. T. (1966). Methodological note on FOK experim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7, 347-347.
- Hart, J. T. (1967a). Memory and memory monitoring proces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6, 685-691.
- Hart, J. T. (1967b). Second-try recall, recognition, & the MEMO pro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 193-197.
- Hoehn-Hyde, D., Schlottmann, R. S., & Rush, A. J. (1982). Perception of social interactions in depressed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209-212.
- Kanfer, R., & Zeiss, A. M. (1983). Depression, interpersonal standard setting, and judgement of self effica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319-329.
- Kuiper, H. A. (1978). Depression and caus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236-246.
- Lachman, J. L., Lachman, R., & Thronesberg, C. (1979). Metamemory through the adult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43-551.
- Lapointe, K. A., & Crandell, C. J. (1980). Relationship of irrational beliefs to self-reporte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247-250.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in depression. In R. J. Friedman, & M. M. Katz (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of research*, Washington, D.C.; V. H. Winston.
-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203-212.
- Lewinsohn, P. M., & Hoberman, H. M. (1982). Depression. In A. S. Bellak, M. Hersen, & A. E. Kazdin(Eds.), *International Handbood of Behavior Modification and 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 Libet, J. M., & Lewinsohn, P. M. (1973). The concept of social skill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ehavior of depressed per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304-312.
- Lobitz, W. C., & Post, R. D. (1979). Parameters of self-reinforcement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3-41.
- Martin, D. J., Abramson, L. Y., & Alloy, L. B. (1984). Illusion of control for self and others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25-136.
- Miller, E., & Lewis, P. (1977). Recognition memory in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dementia; A signal detection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84-86.
- Mischel, W. (1973).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re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80, 252-283.
- Nelson, R. E. (1977). Irrational beliefs in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90-1191.
- Nelson, R. E., & Craighead, W. E. (1977). Selective recall of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self-control behavior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379-388.

- Nelson, T. O. (1984). A comparison of current measures of the accuracy FOK predi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95, 109-133.
- Neslon, T. O., Leonesio, R. J., himamura, A. P., Landwehr, R. F., & Narens, L. (1982). Overlearning and feeling of know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8, 279-288.
- Nelson, T. O., & Narens, L. (1980). A new technique of investigating the FOK. *Acta Psychologica*, 46, 69-80.
- Rehm, L. P. (1977). A self-control model of depression. *Behavior Therapy*, 8, 787-804.
- Smolen, R. C. (1978). Expectancies, mood, and performance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psychiatric inpatients on chance and skill task.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91-101.
- Strack, S., & Coyne, J. C. (1983). Social confirmation of dysphoria : Shared and private re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98-806.
- Wellman, H. M. (1977). TOT and FOK experiences; A developmental study of memory monitoring. *Child Development*, 48, 13-21.
- Wener, A. Z., & Rehm, L. P. (1975). Depressive affect; A test of behavioral hypothes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4, 221-227.
- Wollert, R. W., & Buchwald, A. M. (1979). Subclinical depression and performance expectations, evaluations of performance, and actual performanc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7, 237-242.
- Youngren, M. A., & Lewinsohn, R. M. (1980).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blematic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331-334.
- Zarantonello, M. W., Johnson, J. E., & Petzel, T. P. (1979). The effects of ego involvement and task difficulty on actual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273-281.

Distortion of Self—Perception in Depressed Persons.

Soon-Taeg Whang and Chunghoon choy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memory monitoring process ("Feeling of Knowing" judgement process) was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depressed and the nondepressed in self—perception. 40 stimulus—response pairs of noun were presented to the subjects serially. After the presentation procedure, subjects were instructed to recall the response word for each stimulus word. Then, they were asked to predict their possibility of recognition for each stimulus word in recognition task. Finally, 4—alternative forced choice recognition task was administered . This was compared with the real recognition performance of those items. As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in memory performance or memory perception ability between the depressed and the nondepressed. However, the depressed person's expectation of recognition task performance was lower than that of the nondepressed. The depressed underestimated their memory ability relative to the real performance. This result supported Beck's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